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수사학, 철학적 대화, 변증술

뉘 브리송*

【요약】

공적인 담론은 고전기 아테네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대화와 변증술을 가지고서 이 두 종류의 담론과 대결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소피스트들이 가르쳤던 수사학이고, 다른 하나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묘사한 바에 따르면, 철학의 훈련으로서 언급된 변증술이다. 초기 대화들 속에서 변증술은 긴 연설이 아니라 짧은 대화를 요구함으로써,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소피스트들의 기술과 대립된다.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대화자에게 “(X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서 정의를 요구한다. 이때 정의는 이름을 그것이 지칭하는 사물의 참된 실재에 걸맞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국가』에서, 변증술은 한결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변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 플라톤에 따르면 통치자는 철학자여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참된 지식이 곧 변증술로, 이것은 참된 실재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글에서는 두 개의 논증 도구들을 역사적인 차원과 이론적인 차원 모두에서 대립시키고자 한다. 가르침을 전수가 아니라 지식을 발견하는 것 내지는 지식의 허상을 간파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소크라테스는 한편으로 신화로 대변되는 전통과 대립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연설이나 시범을 통해 드러난 소피스트들의 주장과도 대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철학적 논박술과 변증술을 신화와 수사학적 연설의 대안으로 제시하기에 이른다.

【주제어】 소크라테스, 플라톤, 소피스트, 수사학, 변증술, 논박술

*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편집자] 이 논문은 영어논문으로 투고되었으나 심사, 게재 확정 후 본 학술지의 <투고요령>에 따라 한글로 번역하여 실는다. 원문은 본 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hefinstitute.or.kr).

I. 머리말

시 작품들이 공연되던 축제 기간이든, 혹은 권력이 문제시되는 민회나 법정에서든, 공적인 담론은 고전기 아테네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대화와 변증술을 가지고서 이 두 종류의 담론과 대결하고자 하였다. 나는 지난 시간에¹⁾ 신화의 지위에 관해 기술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거기서 신화 자체는 공동체 성원 모두가 공유하던 지식을 전승하는 이야기라고 소개되었다. 오늘 나는 두 종류의 대립되는 담론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거나 그들의 행동을 바꾸게끔 유도하려는 의도를 지니며, 더 이상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증을 사용한다. 이 글에서 나는 두 개의 논증 도구들을 역사적인 차원과 이론적인 차원 모두에서 대립시키고자 한다. 하나는 소피스트들이 가르쳤던 수사학이고, 다른 하나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묘사한 바에 따르면, 철학의 훈련으로서 언급된 변증술이다.

II. 소피스트²⁾

우리는 “소피스트”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 또 그들이 가르친다고 주장하던 수사학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효과적인 연설의 규칙들을 가르치던 교재들이 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세 가지 종류의 담론이 구별되었다는

1) (역주) 킵 브리송, 『플라톤에게서 신화의 역할과 고대에서 그 역할의 확장』, 『인간·환경·미래』, 5, 2010, 159-194.

2) 소피스트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로는 cf. G. B. Kerferd, *The Sophistic Movement*(CUP, 1981) (김남두 옮김, 『소피스트 운동』, 아카넷, 2000); 소피스트들의 주요 단편들에 대한 불어 번역으로는 cf. J.-F. Pradeau (ed.), *Les Sophistes* (2 vols.)(Flammarion, 2009).

사실이다. 첫 번째로 법정에서 사용되던 법정 연설이 있었다. 거기서의 판결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들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심의 연설이 있었는데, 이것은 민회에서 사용되었다. 거기서는 도시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시범 연설이 있었다. 이것은 중요한 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서, 그곳에 모인 대중들을 향해 이루어졌다. 또는 특정한 수사가가 학생들을 모으기 위한 일종의 광고행위로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편, 법정 연설의 목적은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가리는 데 있었다. 반면, 심의 연설은 유익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예식 연설의 목적은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데 있었다.

1. 소피스트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특징들을 통해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살던 아테네에서 소피스트들을 구별해 낼 수 있을까? 소피스트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특징들 중에서 - 굳이 그것들을 다 가져야 할 필요는 없고 - 다만 몇 가지만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

소피스트들을 특징짓는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이 외국인들이라는 점이다. , 소피스트들이 아테네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테네 시민들은 당연히 유덕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히나 부정적이었다. 아테네에서 소피스트들은 외국인이었지만, 그들의 명성은 자기 조국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확장되었다. 케오스 출신의 프로디코스와 레온티니 출신의 고르기아스는 자기들 조국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아테네에 도착한 뒤에, 강의와 시범 연설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임으로써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대 히피아스』, 282b-c). 히피아스 역시 자기가 조국의 이름을 걸고 몇몇 외교적인 임무를 완수했다고 떠벌린다(『대 히피아스』, 281a). 그들은 아테네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없었기에 자기들의 재능을 시민들을 위한 봉사(교육)에 사용하였고³⁾ 이는 다른 도시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였다. 플라톤은 그들의 이러한 편력이 정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는 데 결정사유라고 보았다(『티마이오스』, 19e).

소피스트들을 규정하는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전문 직업인이라는 사실이다. 소피스트들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젊은이들에게 보수를 받고 가르침을 베푼 사람들이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처음으로 보수를 요구했던 사람은 프로타고라스였다고 한다. 플라톤 대화편에서는 이러한 보수에 관한 언급이 총 31 차례 등장하며(Phoenix, 1964, 191), 이는 크세노폰(『회상』, I, 6, 13)과 이소크라테스(『소피스트에 반대하여』, § 5),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소피스트적 논박』, 165a21, cf. 183b36 이하; 『니코마코스 윤리학』, 1164a30)에게서도 나타난다. 소피스트들의 전문성은 특히 프로타고라스가 두 종류의 학생들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해서 잘 드러난다. 한 부류는 훌륭한 가문의 젊은이들로서 정치 참여를 희망하던 사람들인 반면, 다른 한 부류는 멘다이오스 사람인 안티모이로스처럼 소피스트가 되기를 바라던 사람들이었다(『프로타고라스』, 315a). 이렇게 보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비판을 한 사람이 아네토스와 같은 보수주의자인가, 아니면 소크라테스처럼 개혁가인가에 따라 그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 프로타고라스는 그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정을 경영하는 일 및 공적인 일들에 있어서 최고가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정치적 논쟁과 실천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가”하는 것들을 가르친다고 주장하였다(『프로타고라스』, 319a). 하지만 아네토스와 같은 사람이 보기에 - 그가 『메논』의 후반부에서 설명하듯이 - 이러한 지식은 존경받을 만한 시민의 특권으로서, 이것은 이른바 훌륭한 조상들에서 물려받은 유산으로서 자연스럽게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보기에(『회상』, I, 2, 6; I, 6, 5), 교육의 대가로 돈을 요구할 때,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개인의 자유를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이른바 지적인 매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3) (역주) 소피스트들은 대부분 아테네에서 활약했지만 외국인 신분이었기에 참정권이 없었고, 따라서 현실 정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턱을 교육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소피스트들을 규정하는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이 수사술, 즉 연설의 기술을 가르쳤다는 데 있다. 모든 소피스트들이 가르쳤던 유일한 주제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였다. 고대 그리스에서 “테크네(tékhnē)”라는 용어는 일종의 실천을 지칭했다. 그런데 이 실천은 체계화된 규칙들에 기반한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전문적인 실천과는 구별되었다. 한편 그 규칙들은 인과적인 추론 과정의 결과로 확립된 것들이며, 그 결과물은 합리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기술의 요점은 체계화된 과정의 목록을 이끌어내는 데 있으며, 만일 이것을 법정이나 민회에서의 연설에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목록을 통해 특정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기전 5세기에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었고, 그 표현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은 민회였다.⁴⁾ 그곳에서는 해마다 수십 일에 걸쳐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모임을 가졌고, 그들 가운데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의 보수(misthon)⁵⁾가 지급되었다. 안건은 저명한 시민들에 의해 제안되거나 옹호되었다. 한편,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기될 경우, 법안은 논쟁으로 이어졌고, 투표에 이르게 된다. 그럼으로써 안건은 채택되거나 거부되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행정관들의 선출에도 같은 과정이 적용되었으며, 특히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에 해당되는 장군(stratēgós)의 선출에도 적용되었다. 이렇듯 직접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연설을 통한 설득의 힘은 누군가를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나, 아니면 - 때로는 도시가 중요한 전쟁에 참전해야 할 때처럼 - 안건을 채택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었다.

한편, 5세기 무렵, 아테네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법정을 통해서 그들의 권리를

4) Cf. Mogens Herman Hansen, *The Athenian Democracy in the Age of Demosthenes*(Blackwell, 1987).

5) 그리스의 로마자 표기는 다음의 체계를 따랐다. eta = e, omega = o, zeta = z, theta = th, phi = ph, khi = kh, psi = ps. 이오타 하기(下記)는 해당 모음 뒤에 표기하였다(ex. ei. 한편 alpha의 경우 - 이것은 장모음에만 해당되는데 - ai로 표기하였다). 강기식은 h로 표기하였고, 연기식은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강세는 모두 표기하였다.

지켰다. 소송 당사자들은 이른바 “선에고로스들(sunégoroi)”이라 불리는 증인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들은 발언권이 없지만 여러 다양한 이유로 소송 당사자와 연대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한편, 행정관은 소송의 주도권을 쥐는 대신, 판결의 권리는 없었고 이른바 “조정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대중들 가운데 선출된 판관들의 역할은 예심에서 투표를 통해 쟁점을 결정하는 일에만 국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테네의 재판은 몇 가지 점에서 두 진영 간에 벌어지는 마상 창시합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각 진영은 이 시합의 진정한 주체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재판부 역할은 시합을 감시하는 데 있었고, 이를 통해 규칙의 준수와 결과에 대한 승복이 존중되었다. 판관의 역할은 오직 판결에만 한정되었다. 즉, 정의나 법에 부합하게 판결을 선언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자율적인 행위, 이를 테면 사실의 확립이나 형벌의 적용 등을 위한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사람들이 설득의 기술을 직접 시연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나, 또는 플라톤이 『파이드로스』의 말미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관련 교본을 저술하는 사람에게 그토록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또 왜 소피스트들이 어떤 식으로든 담론과 관련된 모든 것, 예를 들어 용어의 정확한 사용, 시인들에 대한 주석, 심지어는 - 시에 사용되었던 - 좁은 의미의 음악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기억술 훈련 역시 수사가가 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을 형성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피스트들은 어디서 가르쳤나?

소피스트들은 사적인 영역 또는 공적인 영역에서 가르침을 행하였다. 사적인 가르침의 경우 교육은 그들을 고용한 사람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테면 칼리아스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에서 그의 집을 대화의 무대로 설정하였다.). 그는 아테네의 거부였고, 다른 어느 시민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소피스트들을 위해 썼다고 한다(『변론』, 20a) 비록 몇몇 시범 연설들이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예를 들어 프로디코스는 칼리아스의 집에서 몇몇 예식연설을 보였다고 한다. 위(僞) 플라톤, 『악시오코스』, 366c. 또한 고르기아스는 칼리클레스의 집에서 연설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연설이 이루어진 곳은 무엇보다도 공적인 공간에서였다. 히피아스는 페이도스트라토스의 학교에서 이러한 연설들 한 가지 시범을 보였고(『대 히피아스』, 286b), 프로디코스도 마찬가지로 뤼케이온에서 시범 연설을 하였다(『대 히피아스』, 286b, 『에뤼시아스』, 397c). 소피스트들이 올림피아 제전을 비롯하여 이곳저곳의 제전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제공한다. 우선 이 사실은 소피스트들이 자기들을 제전에서 공연을 했던 시인 및 음송시인들의 계승자라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이 사실은 또 제전이 경쟁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피스트의 직업이 지닌 경쟁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축제가 다양한 도시의 시민들이 서로 만나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의 차이를 잊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디를 가든 외국인 신분이었던 소피스트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를 의미했다.

3. 소피스트는 무엇을 가르쳤나?

수사학 강의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하나는 연설의 부분을 구분해내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다른 하나는, 플라톤이 『파이드로스』의 후반부에서 검증하고 있듯이, 연설의 각 부분에 사용되는 담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파이드로스』의 전반부에서 소크라테스는 파이드로스가 그에게 읽어준 뤼시아스 연설문의 내용을 비판했던 것과 달리, 대화의 후반부에서는 같은 연설문의 형식에 대한 비판을 개시한다. 파이드로스가 수사학이 일종의 기예 또는 기술(*tékhnē*)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소크라테스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직 변증술만이 그것의 분석과 종합의 절차를 통해, 기술적인 성격을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가급적 신중하고 솔직한 태도로 일관하려 하는 소크라테스도 수사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려 한다. 이런 목적을 마음에 품고서 그는 당시에 유명했던 수사술 교본(敎本, *tékhnai*)을 참고하여 검토한다(『파이드로스』, 266d1-6). 흔히 교본으로 볼 수 있는 이 책들은 연설가에게 중요한 두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하나는 연설의 부분들로서 이것은 수사술 교본의 일차 저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다른 하나는 연설가가 해야 할 일(임무)로서, 이것은 이른바 “소피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이 발전시켜나가는 주제였다. 플라톤(『파이드로스』, 266d7-267d7)과 아리스토텔레스(『수사학』, III, 13, 1414b8-17)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4. 연설의 부분들⁶⁾

이 두 사람의 작품에 나란히 담긴 핵심 요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뷔잔티온 출신의 테오도로스가 썼다고 알려진 수사술 교본 가운데 일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나 법정 연설의 부분들에 관한 것으로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알고 있던 내용이라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스트적 논박술』(34, 183b28-33)의 끝 부분에서 수사학의 계보를 기술하면서 테오도로스의 위상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테오도로스가 연설의 부분들을 여러 차례 언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이 주제에 관해 최초로 글을 쓰지는 않았음이 분명하다.

1)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담론의 시작과 끝부분에 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우선 두 사람 모두 머리말(*proimion*)에 관해 언급한다. 또한, 비록 그들이 지칭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예를 들어 플라톤은 요약(*epánodon*)이라 부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맺음말(*epilogos*)라고 부르는 등, 똑같지는 않지만, 그들은

6) Cf. Luc Brisson, “Quelques manuels de rhétorique antérieurs à Platon et à Aristote”, in Luc Brisson & Pierre Chiron (edd.), *Rhetorica philosophans, Mélanges offerts à Michel Patillon*(Vrin, 2010), 35-47.

분명히 동일한 대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상 플라톤은 여러 작가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기 2세기 무렵의 인물로 수사술 교본의 저자이기도 한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머리말을 통해서 청중들은 논의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머리말의 임무는 청중들이 무엇이 이야기되는가에 집중하게 만들고 호의 또는 비난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 (§4). 이 후대 작가의 규정은 서기전 4세기 중반에 쓰인 『알렉산드로스를 위한 수사학 교본』에서 이미 확립된 학설의 요점을 암시하고 있다.

2)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주장(próthesis)”은 플라톤의 진술(diégesis)에 대응한다. 이때 “진술(diégesis)”이라는 용어가 테오도로스에게서 발견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는 매우 많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단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나뉘본다면, 테오도로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부언(附言, epidiégesis), 서설(序說, prodiégesis)과 함께 또 다른 진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주장(próthesis)이라는 용어는 실제 사실들 혹은 그러그러하게 드러난 사실들을 소개하는 것에 잘 대응하는데, 이것은 사실에 대한 진술(diégesis)의 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루푸스에게서 매우 흥미로운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 “진술(diégesis)이란 주제에 포함된 사실들을 연설가의 입장에서 소개하는 것이다 (§ 17)... 여담(paradiégesis)은 줄거리의 전개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덧붙여지고 연설의 유용성을 위해 사용되는 진술이다.... (§ 23). 서설(prodiégesis)은 다루려는 문제에 관한 진술에 앞서 법정에서 서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우리는 또 부언(附言, hupodiégesis = epidiégesis)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이나, 의도, 또는 동기를 진술할 때이다 (§ 25).”

3)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다음에 오는 것은 논증(pístis)이다. 한편 테오도로스는 논증의 영역 안에서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해 나아간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논증(pístosis)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조논증(epipístosis)”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변에는 기술외적인 증거들, 무엇보다도

증언들이나 생략추론과 연결된 기술적인 증거들, 그리고 도덕 및 관습(éthé)과 연결된 주관적인 증거들이 포함된다. 논증은 연설의 몸체를 구성한다. 루푸스는 증명(apodeixis)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증명이란 특정 사건에서 논쟁 하에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다시금 확립하는 것이다.” (§ 26).

(가) 무엇보다도 논증은 증언을 포함하는데, 플라톤은 이것을 진술 바로 뒤에 위치시킨다. 이 증언들은 소송당사자들에 의해 제기되며, 이것들의 질은 사람들, 사실들, 그리고 양자가 지닌 도덕성 여부에 좌우된다.

(나) 증거들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논증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략추론(enthymeme)”이라고 부른 것이 사용된다. 그런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이전까지는, 누구도, 그러니까 테오도로스도 플라톤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생략추론이란 일종의 수사추론으로서(『수사학』, I, 2, 1356b5), 일정한 생각을 품고 있는 청중들에 의해 수용된 개연성 있는 전제들로부터 연역해 내는 추리이다. 그런데 생략추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어떤 것들은 증명적인 것들로서 사정이 그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립하는 것인 반면, 다른 것들은 논박적인 것들이다. (...) 증명적 생략추론은 받아들여진 주장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논박적 생략추론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론들을 이끌어낸다.”(II, 22, 1396b26-28). 플라톤은 연설 가운데 논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단계에 어떤 이름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의 도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증명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도구들은 징표(tekmería)과 개연성(eolóta)을 포함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개연성이란 생략추론 가운데 “그 결론이 참이거나 대부분의 경우에 참인 것으로부터 도출된 추론이다.”(II, 25, 1402b15). 이와 달리 증명은 “필연적인 것, 그리고 예외를 갖지 않은 것에 호소하는” 증거들에 기반한 생략추론들을 말한다(II, 25, 1402b18). 테오도로스는 다음과 같이 혁신을 가한다. “물론! 그가 생각하기에는 그 외에도 고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변론에 있어서도 ‘논박’과 ‘추가논박’을 진행해야 한다네.”) 또 그는 “고발/논박” 그리고 “후고발/논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

(다) 추론뿐만 아니라 품성(éthos) 또한 논증 안에 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품성은 발언을 행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발언을 행하는 연설가에 의해 청중들 안에 깃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연설가가 청중들에게 제공하는 자신의 이미지라 할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맺음말(peroration)이 있는데, 루푸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맺음말은 판관의 분노나 그와 반대되는 감정을 증폭시킬 목적으로, 혹은 우리가 ‘재론(recapitulation)’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사람들을 상기시킬 목적으로 증명부에 덧붙여 전개하는 부분이다.” (§§ 41). 재미있는 것은 플라톤이 맺음말에 관해 언급하기 바로 전에 트라쉬마코스와 함께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기술을 거론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법정 연설가에게는 판관들에게 자신의 적에 대한 미움을 촉발시키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면서 연설을 끝맺는 것이 매우 커다란 관심거리였다.

5. 연설가의 임무

연설가가 발언을 할 경우, 그것이 법정 연설이든, 혹은 심의 연설이나 시범 연설이 되었던 간에, 그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것들은 각각 논거의 발견, 논거의 배열, 표현, 기억, 그리고 연기이다. 논거 발견은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는 데 사용할 재료들을 모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논거 배열은 그 재료를 조직하는 것이다. 한편, 표현은 생각을 말로 전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체와 관련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은 이 표현에서인 셈이다. 전체이든 부분이든 간에 연설을 글로 썼을 때, 연설가는 그것을 자신의 기억 속에 간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위와 관련된 규범들, 즉 공적인 연설의 실천으로서는 목소리와 연기를 다룬다. 우리가 분석하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목들에서는 이것들 가운데 두 가지만을 살펴볼 것인데, 그것들은 표현과 연기가

7) (역주) 플라톤, 『파이드로스』, 267a.

다.

- 1) 표현 또는 말투와 관련된 문제들: 연설에서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티시아스와 고르기아스가 지적했듯이, 수사학에서는 진리보다 개연성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설은 그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며, 온갖 종류의 수정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수정은 민회나 법정에서 승리할 목적을 가지고서 연설문을 짜는 사람이 연설에 좀 더 강한 힘을 부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말투에 대한 고려, 그리고 생각에 적절한 말투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설가라면 색다른 것을 설명할 때 의고적인 어투를 사용하고, 그와 반대되는 것에는 생경한 말투를 부여함으로써, 중요한 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보이게 하고, 또 사소한 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끔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주제를 다루든 간에 그는 간결한 어투뿐만 아니라 한없이 긴 장광설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프로디코스와 히피아스의 이름을 통해서 티시아스와 고르기아스와 같은 이름들을 연상시키고 있다. 말투에 관해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된 어휘들의 선택과 배열, 그리고 연설가들이 사용하는 표현 방식(文彩)들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 2) 연기: 수사학의 역사에서 트라쉬마코스에게 갖는 관심은 그가 어떤 연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실체와 나란히 연기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데 있다. 사실 청중들은 종종 연설의 실체보다는 오히려 행위에 더 주의를 기울이곤 한다. 따라서 행위의 중요성은 공정한 판결에서 빼놓을 수 없다.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는 트라쉬마코스에게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기엔 노령과 궁핍에 대한 탄식의 연설들은 칼케돈 출신의 그 혈기왕성한 사람이 기술을 통해 통달한 것처럼 보이네. 그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는 또한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격분시켰다가 격분한 사람들을 다시 노래와 같은 말로 사로잡는 데 능란한 인물이지.”(『파이드로스』, 267c-d, 조대호 역). 이 언급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다음과 같은 증언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 같다. “말투와 관련된 원칙들이 수행될 때, 그것들은 무대에서와 동일한 효과를 산출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

을 다루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트라쉬마코스가 그의 『동정심에의 호소』에서 보여주었듯이, 매우 미미한 시도들만이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이루어져왔을 뿐이다. 극적인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며, 체계적으로 가르쳐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II, 1404a14-16). 여기서 『동정심』이란 플라톤이 『파이드로스』⁸⁾에서 언급한 작품임에 분명하다.

- 3) 연설가가 바라는 것: 궁극적으로 연설가의 임무는 연설의 모든 부분에서 “개연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⁹⁾ 따라서 연설은 그 대상으로부터 떨어져나 오게 되며, 부과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조작을 겪게 된다. 이는 민회나 법정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대중적인 시범 연설의 장에서 박수갈채를 얻을 목적으로 연설에 힘을 주고자 하는 연설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III.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수사학과의 가장 분명한 대립은 『소크라테스의 변론』 도입부에 바로 나타난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 한다. 그는 그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수사학의 도구들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럴듯한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반면 그는 참을 이야기할 것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바로 그것이 철학자의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일단 도입부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1. 철학적 대화¹⁰⁾

8) (역주) 플라톤, 『파이드로스』, 266c.

9) 플라톤, 『파이드로스』, 272e-273a: “연설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나 그럴 듯한 것을 추구해야 하고 많은 경우 진상에는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어떤 연설을 할 때나 이런 원칙이 지켜진다면, 그로부터 완전한 기술이 얻어지는 겁니다.”

10) 플라톤의 대화편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참조하라. Charles H. Kan, *Plato and*

플라톤은 무엇보다도 문학적인 저자, 내지는 작가였다. 크세노폰이 『회상』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플라톤 역시 그의 작품들 속에서 소크라테스의 행적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하여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의 비범한 인격을 돌이켜보려 하였다.

바로 이 의도는 그에게 대화라는 문학적인 형식을 부과하였고, 이 형식은 비록 부단히 변형되기는 했어도 그의 저작 전체에 걸쳐 유지되었다. 이러한 해석의 전제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다. 다시 말해 플라톤의 시대에 글로 쓰인 문학의 출현은 교양있는 청중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플라톤의 작품을 예컨대 비극과 희극처럼 여타 문학 장르들과 연결시켜 볼 수 있게끔 해준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다음과 같은 관찰의 결과로서 비롯된 것이다. 즉 플라톤이 “철학자”와 “철학”이라는 용어의 “발명자”인 이상, 그가 처음부터 철학적 학설을 옹호했던 사상가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하물며 철학 체계를 세운 사상가라고는 더더욱 볼 수 없다. 플라톤은 점차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의 의미에서 “철학자”가 되어갔던 셈이다.

소크라테스의 행적을 되새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역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자기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교육자로 소개될 수 있는가? 그가 자신의 무지, 즉 지식의 결여를 주장한 이상, 소크라테스는 어떠한 지식도 전수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the Socratic Dialogue: The Philosophical Use of a Literary Form, Cambridge, 1996; Frédéric Cossutta & Michel Narcy (edd.), *La forme dialogue chez Platon. Evolution et réception*, Grenoble, J. Millon, 1991; Francisco Gonzalez (ed.), *The Third Way: New Direction in Platonic Scholarship*, Lanham [Maryland], Rowamn and Littlefield, 1995; Christopher Gill & Mary Margaret McCabe (eds.), *Form and Argument in Late Plato*, Oxford, Clarendon Press, 1996; Charles Lanier Criswold Jr. (ed.), *Platonic Writings, Platonic Readings*, New York, Routledge, 1988; Luc Brisson, “Le dialogue comme forme littéraire chez Platon et Socrate,” in Ada Neschke-Hentscke (ed.), *Argumenta in Dialogis Platonis*, Basel, Schwabe, 근간.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교류해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자기는 무지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구했던 목적은 자신의 대화자들을 기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자의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의 목적은 대화자가 이미 소유한 지식을 재검토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가 초기 대화편들이 최소한 겉보기에는 실패로 끝난다(aporetic)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 초기 대화들의 특징: 극적인 긴장과 논박술, 논리적 구조와 수치심의 역할

초기 대화들은 본질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다음과 같은 관심에 의해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델포이의 신탁을 통해 받은 답변을 검증하고자 시도한다. 그 답변은 소크라테스가 무지를 자처한 데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카이레폰이 신탁을 구하러 델포이에 갔을 때 혹시 누군가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신탁은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변론』, 20e-21a). 소크라테스의 말에 따르면 신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에, 그는 아폴론의 신탁¹¹⁾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아테네에서 무엇인가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졌다. 그렇게 그가 지혜로운 자들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정치가들(21b-e), 시인들(21e-22c), 그리고 장인들(22c-e)이었다. 정치가들은 지식이 전적으로 결여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시인들의 경우 재주는 뛰어나지만 그 재주는 적극적인 지식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이성과 무관한 재능에 의한 것이었다. 장인들만이 실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참된 지식이라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각적인 것들에 적용되는 것이었으며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이 탐구는 대화의 맥락 안에서

11) (역주) 델포이 신전의 주관자는 예언의 신 아폴론이다.

수행되었고, “논박(élegkhos)”이라고 부르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졌다. 소크라테스적 논박은 독특한 논리적 구조를 보여주는 한편, 윤리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논박의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는 그레고리 블라스토스¹²⁾가 탁월하게 분석한 바 있으며 수많은 주석가들이 그의 분석을 따랐다.¹³⁾ 그 경우 답변자는 하나의 논제를 옹호하는데, 바로 그것이 논박의 표적이 된다. 곧이어 소크라테스는 대화자가 특별한 논의 없이 받아들여진 주장들에 동의하도록 그를 이끌어낸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화자가 주장하는 논제와 모순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일단 이 결론들이 받아들진 이상, 소크라테스는 이 주장들이 처음에 옹호했던 논제의 부정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학자들은 답변자가 동일한 주제에 관하여 모순된 답변을 제출했음을 드러냄에 의해서, 답변자의 의견이 거짓임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해 -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지만 - 물음을 던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순된 답변들은 대화자의 무지를 비난하는 것이었으며, 수치심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은 고대 그리스 문화가 수치문화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유죄인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었다.

루이-앙드레 도리옹이 분명하게 지적하였듯이 논박의 논리적 차원은 도덕적인 목적에 종속되는 것은 바로 이를 통해서이다.¹⁴⁾ 소크라테스가 논박을 수행한 것은 논박 자체를 즐기고 그를 통해서 대화자를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통하여 대화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정치가들, 시인들 그리고 수공업자들을 상대로 논박술을 펼쳤다고 언급한 뒤에 그 자신이 직접 지적했듯이 아테네 시민들이 이해하지

12) Gregory Vlastos, “The Socratic elenchus,” in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1 (1983), 27-58.

13) 여기서 장황하게 이들의 이름을 열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14) Louis-André Dorion, “La subversion de l’elenchos juridique dans l’Apologie de Socrate,” in *Revue philosophique de Louvain*, vol. 88(1990), 311-344.

못한 것이다. “아테네인 여러분, 이러한 탐구의 결과로서 나는 커다란 미움을 받았고 그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많은 비방들과 함께 지혜롭다는 평판이 이 사람들로부터 나왔지요. 왜냐하면 매년 구경꾼들은 대화자들이 갖고 있지 못함을 입증한 그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변론』, 22e-23a). 소크라테스 자신은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는 자기 자신을 신들이 그의 동포시민들을 위하여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허상과 잘못된 의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을 소크라테스가 정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혼의 정화(『소피스트』, 226a-231c)는 수치심에 의해 촉발된다. 논박당한 대화자가 스스로 자신의 모순을 제거하고 무지를 버리고자 노력한다면, 그는 우선 자신이 모순에 빠졌다는 데 대하여 수치심을 느껴야 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하여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그러한 인정이, 이를 테면 소피스트가 답론을 매개로 승리를 쫓는 경우와 같이 수사학적인 논쟁의 결과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진리 그 자체와 관련된 의무라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여기, 그러니까 논박술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고전 논리학의 형식을 제시하는 한편, 대화자들이 수치스럽게도 지적 불임임을 인정하도록 이끌어냄으로써 도덕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우 자주, 이렇게 지적 불임을 인정하는 것이 대화자들의 자기 개혁의 의지로 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카르미데스』에서 크리티아스의 경우처럼 (169c-d), 또 『고르기아스』편의 칼리클레스라든가 『국가』의 트라쉬마코스가 보여주었듯이, 강하든 약하든 폭력적인 분노의 감정을 촉발시켜왔다. 그러므로 초기 작품들에서, 대화는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앎에 대한 비판을 지향함으로써 일견 소극적인 측면을 보여주며, 때때로 분노의 감정을 촉발시키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셈이다.

다른 한편, “질문과 답변을 논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소크라테스가 묻는 물음은 “그것이 무엇인가(ti esti)”라는 형식을 띠며, 이것을 통해 그 대상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고자 한다.

3. 평화로운 대화로의 전회: 상기의 도구로서의 대화

하지만 『메논』(80e-81e)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메논과의 대화 속에서 논박술(élegkhos)을 통해 메논의 노예 소년이 사각형의 두 배 크기에 관한 잘못된 의견을 제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무엇보다도 정답을 향해 소년을 이끌어간다. 달리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소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영혼에 가지고 있었던 적극적인 지식을 기억해 내도록 만든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상기(anámnesis)”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이는 대화의 적극적인 측면에 빛을 가져다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노예 소년을 둘러싸고 전개된 유명한 물음들이 암묵적으로 분리된 형상의 존재를 제기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파이돈』(72e2-77a5)에 가서야 분명해진다. 설정된 대화의 장이 교육적 맥락 속에서 상기의 과정에 관해 주어진 것이라면, 이때 대화 형식은, 우리가 분리된 가지적 형상들의 존재와 분리된 영혼을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서, 참인 것과 좋은 것의 발견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가지적인 실재들과 우리의 영혼 모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이다(『파이돈』, 76d7-e8). 그렇다면 어떻게 또 어떤 조건 하에서 참된 실재들을 관조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을 제시하는 것은 『파이드로스』편의 중심을 이루는 신화(245c-246b)이다.

이 영역에서도 소크라테스는 기존의 관점을 뒤집는데, 이 모습은 우리가 『향연』에 전개된 디오티마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읽어봄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몸을 가진 것들의 세계에서(『향연』, 206c-e), 암컷과 수컷은 성적인 결합(sunousía)을 통해서 수태(kúesis)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 세계에서 수태의 과실(spargôn)을 얻고자 하는 존재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아름다움의 도움이 없이는, 잉태(diakheítai)는 물론, 출산(tíktei, gennâi)으로 나아가지도 않는다. 한편으로는 운명(Moira)과 출산(Eileithyia)이 다른 한편으로는 아름다움이 산고(odínos)로부

터 영혼이나 몸에 과실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우리 세계에서 임신의 과실은 곧 아이들로서 이들은 일정한 형식으로 불사성을 보장받는다. 그런데 그것은 유한자가 아름다움과 일치함으로써 신적인 것에 다가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반면에 수태가 영혼에서 이루어질 때 그 과실은 사유이고 탁월함(德)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담론과 행위를 통해 전화되며, 그럼으로써 그것을 산출한 자에게 진정한 불사성을 보장해준다.¹⁵⁾

몸이 겪는 수태와 영혼이 겪는 수태의 차이를 역설하는 『향연』의 두 번째 대목(208e-209e)에서는 수태로부터 비롯되는 교육 훈련이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 디오티마는 가르치는 자와 그의 학생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묘사한다. 그런데 이 묘사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적 특징을 모델로 취함으로써 사제 관계라는 (남성적) 모델과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그중 한편은 소년애(paiderastia)로 대표되는 것으로서 파우사니아스와 아가톤이 그들의 발언에서 옹호했던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파우사니아스와 아가톤의 발언을 한편에 놓고, 또 디오티마의 이야기를 다른 한편에 놓고서 이들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대립적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첫 번째 대립은 교육을 스승과 제자 사이의 동성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전승으로 - 더 나아가 지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의 전승으로 - 이해하는 것과 교육이란 선생에게 이미 들어있는 지식이 제자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대화와 행위를 통해서, 마치 아기가 태어나듯이, 빛을 보게 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발견으로 사고하는 것 간의 대립이다.

2) 두 번째 대립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는 제도화된 동성에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는 연상의 남자와 사랑을 받는 연하남 사이의 소년애(paiderastia)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소년은 연인의 지식과 힘과 부모부터 이익을 거두기 위해 그에게 예속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다른 하나는 교육이 영혼 안에서 임신부와 같은 상황을 일으킨다는 생각이다. 이때 산모는

15) Luc Brisson, "Une réfutation contagieuse: Banquet 199c-201c et 201e-203a," in *Antiquorum philosophia* 1(2007), 91-97.

자신이 잉태한 태아가 무사히 빛을 보게 하려 한다. 영혼의 경우 기억해야 할 것은 분만하는 쪽이 스승이라는 사실이며, 이는 제자의 출현과 함께 그와의 부지런한 관계맺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의 용어가 모호하긴 한데, 어떠한 것도 스승과 제자의 성적인 관계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3)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의 단계에서 볼 때, 사람들은 신체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아름다움 사이의 대립에 주목한다. 전자는 그저 소비의 대상인 반면, 후자야말로 수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플라톤의 경우가 대개 그렇듯이, 우리는 이 세 가지 대립을 통해서도 고대 그리스에서 이루어지던 일상적인 행위에 대한 완전한 전복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디오티마가 수태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전개한 이러한 교육의 모델은 소크라테스에게 적용될 수 없다. 그는 『테아이테토스』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네. 왜냐하면 신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의을 도우도록 한 반면, 내가 직접 잉태하는 것은 금하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어떤 의미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야. 나는 마치 어린애처럼 나 자신의 영혼으로부터는 지혜라고 이름붙일 만한 어떠한 발견도 주장할 수 없다네. 그러나 나와 함께 어울리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지.”(『테아이테토스』, 150c-d). 소크라테스는 결코 교육의 과정에서 참인 담론과 훌륭한 행위라는 자식을 낳는 선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디오티마가 묘사했던 것과 같은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반대로 그에게 강요되는 관계의 역전이다. 즉 그는 젊은 사람의 역할을 맡아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선생이 출산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역할 바꿈을 젊은이들과의 관계에서 행한다는 사실이다. 가장 좋은 예는 알키비아데스이다. 그는 『향연』의 말미에 등장하여 소크라테스를 찬양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더 나이가 많으니 마땅히 자신에게 구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더 젊은 자기가 소크라테스를 쫓아다니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¹⁶⁾ 간추려 말하면 소크라

16) (역주)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남성들 간의 동성애(엄밀하게는 소년애)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었다. 단 이 경우에 언제나 구애를 하는 쪽은 성인 남성인 반면, 구애를 받는 쪽은

테스는 선생의 역할이 아니라 학생의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그런 이유로 교육에서 그의 역할은 산파에 머무는 것이다. 산파는 산모의 태아가 살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산시키는 반면 살 수 있는 태아의 출산을 돕는다. 이러한 역할의 전도는 미묘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설명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향연』과 『테아이테토스』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결과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공허함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건, 잘못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건, 혹은 누군가가 진리를 낳는 데 있어서건, 오직 산파라는 보조자로서 개입할 뿐이다.

“질문과 답변의 논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던지는 물음을 수정된다. “X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점점 더 자주 “예” 또는 “아니오”를 요구하는 질문들로 대체되고, 그럼으로써 대화자의 주도권은 점차 약해지게 된다.¹⁷⁾ 우리는 『파르메니데스』편 제2부의 소크라테스와 젊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의 대화에서 이러한 경향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왜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 그리고 『법률』에 이르러 대화 형식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지도 설명해준다.¹⁸⁾

4. 논박과 상기의 종합으로서의 산파술

소년이었다. 성관계에서도 능동적인 역할은 성인에게, 수동적인 역할은 소년에게 부여되었다. 이 관계가 뒤바뀐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일뿐더러 사회적으로도 멸시와 조롱,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17) (역주) “X가 무엇이야?”라는 질문을 받을 경우, 답변자는 X에 대하여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반면, 질문자는 대화자의 답변으로부터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의 주도권을 답변자가 갖게 된다. 이이 반하여 “예”나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의 경우, 답변자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로 축소되는 반면, 질문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

18) Luc Brisson, “La répartition des négations dans la seconde partie du Parménide de Platon. Le discours de Parménide. Informatique et statistique,” in *Revue de l'Organisation Internationale pour l'Etude des Langues anciennes par Ordinateur* 1(1978), 45-62.

소크라테스를 영혼이 아니라 몸의 출산을 돕는 산파와 동일시함으로써, 플라톤은 앞서 언급된 교육적 대화에서, 대화를 통해 나타난 부정적인 극면과 긍정적인 측면 사이의 종합을 수행해 낸다. 『테아이테토스』라는 대화에서 소크라테스는 작품의 대화자인 테아이테토스에게 일련의 비밀들을 이야기해준다. 즉 그는 산파의 자식이며 자신의 어머니를 흉내내어 몸이 아니라 영혼의 출산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148e-150b). 따라서 그는 자신이 테아이테토스의 산고로부터 출산에 이르는 데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150b-151d).

한 젊은이가 자신의 영혼이 임신 중이라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는, 그 자신이 임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산파의 역할을 맡는데, 그의 일은 실제 산파에 부여된 세 가지 임무와도 부합한다. (1) 관찰을 통해 젊은이가 사실은 임신하기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를 프로디코스와 같은 소피스트에게 가라고 보낸다. 물론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즐겨하는 조롱이다. 그렇지 않고 젊은이가 정말로 임신을 한다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2) 만일 그의 영혼이 (진리의) 이미지를 수태했다면,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오류와 함께 낙태시킨다. 소크라테스는 『테아이테토스』에서 바로 이 설명을 통해 논박의 과정을 암시한 것처럼 보인다. 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산파술은 소크라테스의 몇몇 제자들을 스승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든다. 그리고 일단 떠난 뒤에 다시 스승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붙잡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소크라테스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신호이다. (3) 그게 아니라 젊은이가 정말 진리를 수태했을 수도 있다. 그 경우 소크라테스는 젊은이에게 산고를 촉발시키거나, 혹은 고통을 경감시켜주기도 한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수행할 수 있는 산파의 역할은 플라톤의 작품인 『테아이테토스』의 바로 이러한 대목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산파술이 그려내는 부정적인 측면은 논박술과 부합하며, 그 역할은 대화자의 영혼이 비어있음을 보여주거나 혹은 대화자의 영혼에서 오류를 제거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산파술은 또한 젊은이의 영혼 속 어딘가에 은폐되어 있는 진리를 태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그려내기도 한다.

이러한 산파술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이제 대화는 참된 실재에 접근하는 엄밀한 방법론임을 자처한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변증술적인 것이 된다. 이를 통해 대화는 한편으로 전통에 따라 이어져온 신화와 대립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피스트들이 만들어내는 긴 연설과도 대립하게 된다.¹⁹⁾

5. 엄밀한 대화로서의 변증술²⁰⁾

언어적 관점에서만 보아도 “대화(díálogos)”와 “대화하다(dialégesthai),” 그리고 “변증술(dialektiké)”은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것들이 보여주는 측면이 어떤 것이건 간에, 대화가 사물의 본성(어떤 것이 무엇인가)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간결한 답변의 요구에 부응할 경우, 그것은 “변증술적인”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초기 대화들 속에서 변증술은 소크라테스의 요구에 기반을 두고 수행되었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의 지식을 검토의 대상으로 놓았다. 한 가지 기술을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그저 한 가지만을 알고 있을 뿐이며, 그것은 다른 영역, 특히 정치학의 영역으로는 확장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긴 연설이 아니라 짧은 발언을 요구함으로써,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소피스트들의 기술과 대립된다. 대화는 그 자신에게 “(X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서 간결함의 요구를 부과한다. 오직 이 답변만이 본에 일치하는 형상(eídos)이나 이데아(idéa)에 의해 인과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참된 실재(ousía)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크라틸로스』에서 어떻게 질문한 것인지를 안다는 것은 곧 정의를 구하는 것임을 보게 된다.

19) Cf. L. Brisson, “The relations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a dialogue and its formal structure: The example of the Theaetetus,” in A. Bosch-Veciana & J. Monserrat-Molas (eds.), *Philosophy and Dialogue. Studies on Plato’s Dialogue*, vol. II, Barcelona(2010), 67-79 [Academia 6].

20) M. Dixsaut, *Métamorphoses de la dialectique dans les dialogues de Platon*(Vrin, 2001).

이때 정의는 이름을 그것이 지칭하는 사물의 참된 실재에 걸맞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혹은 거꾸로 이것이 정말 그 이름인지 아닌지 묻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사물에 부여하는 정의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묻는 것과 같다. 두 경우 모두 변증술은 이름과 사물 간의 일치를 위한 전제조건인 셈이다.

우리가 『국가』의 중심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변증술은 한결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변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 철학자는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참된 지혜(sophía)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참된 지식이 곧 변증술로, 이것은 참된 실재(ousía)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변증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토론을 통해 참된 실재 안에서 같음과 다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증술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수학과 달라진다. 수학이 가정(hypothesis)에서 결론(conclusion)으로 움직이는 반면, 변증술은 가설적인 것(hypothetical)에서 비가설적인 것(unhypothetical)을 향해 움직인다. 그런데 이것은 플라톤에게 있어서 다음과 같은 앞에 기반한 것이다. 즉 가정이란 “추측(supposition, 즉 밑에 깔린 입장)”이나 “주장(proposition, 즉 제기된 입장)”가 아니라, 하나의 “입장(position)”이며 “채택된 입장(adopting a position)”이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수학자와 달리, 변증가는 참된 실재들의 정점, 즉 좋음의 이데아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때 좋음의 이데아는 가지성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생성의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을 언급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된다. 그것은 또한 모든 좋은 것들에 내재한 좋음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좋음은 변증술의 목적이자 완성(télos)이라 할 수 있다.

변증술이 극단까지 전개될 때, 그것은 하나의 방법론이 되며, 솜씨 좋은 푸주한처럼 실재를 적절한 방식에 따라 부분들로 나누는 것을 지향한다. 소크라테스가 주요 화자로 등장하는 『파이드로스』의 한 대목(265c-266c)에서, 우리는 그가 처음으로 분석과 종합이라는 절차에 관해 언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반성은 수사학과 철학의 차이라는 맥락 안에 자리 잡는다. 이때의 요점은 칭찬과 비난이 담론의 두 가지 형식들로서, 이것들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규칙을 드러내주는 변증술적 반성에 의존해야 하는 것됨을 보여주는 데 있다. 『소피스트』와 『정치가』에서 이러한 과정들은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대상인 형상들로 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엘레아 출신의 이방인이 주요 화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마치 플라톤이 더 이상 소크라테스를 참된 실재의 묘사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된 엄밀한 방법론의 주인으로 묘사할 수 없게 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6. 결론을 대신하여

가르침을 전수가 아니라 지식을 발견하는 것 내지는 지식의 허상을 간파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소크라테스는 한편으로 신화로 대변되는 전통과 대립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연설이나 시범을 통해 드러난 소피스트들의 주장과도 대립하였다.

신화의 경우, 그 목적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던 지식을 전승하는 데 있는 것인 바, 이 문제는 초기 대화편들에서 매우 분명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화가 이야기될 때 대화는 멈춰버린다. 이는 『프로타고라스』와 『정치가』에 잘 나타나있다. 플라톤이 가장 존경했던 소피스트이기도 한 프로타고라스는 그의 이름을 딴 대화편에서 신화를 이야기해주고(320c-324d), 그 다음에 논증적 담론을 전개한다(324d-328d). 그러나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대화에서, 세 번의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 그러니까 신화의 시작(320c2-4)과 끝(324d6-7)에서, 그리고 논증적 담론이 끝날 때(328c3-4) - 프로타고라스는 한 번씩 신화와 논증적 담론을 대립시킨다. 반면 『정치가』에서 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엘레아의 이방인은 통치자이며 정치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시도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엘레아의 이방인은 변증술에 적절한 방법의 하나로 논증적 담론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눔(分析)의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262a-264b) 대상을 둘로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나누어진 각각의 전체 역시 두 부분으로 고려되며, 다시 둘 중 한 부분이 동일한 나눔의 절차를 겪게 되고,

그렇게 이 과정은 찾고자 하는 정의의 구성 요소들을 모두 얻을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어느 순간, 대화자들은 통치자의 정의로 대중의 목자라는 규정이 제시되는데, 이번에 엘레아의 이방인은 신화를 사용하여 이 정의가 아득히 먼 과거에나 적용될 뿐,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제안을 거부한다. 또한 이것은 그가 문제가 되는 신화를 이야기한 이후에 설명한 것이다(274e1-4). 이와 동일한 생각은 나중에 그림과의 매우 선명한 비교를 통해 한 번 더 취해지고 전개된다(277a3-c6). 아울러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신화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사용의 기본 원칙들 또한 존재한다. 첫째로 우리는 신화가 분별없이 이야기되도록 놔두서는 안 됨을 기억하되, 둘째로, 그림에도 불구하고 신화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기억해야 한다. 신화는 대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수가 공유하는 지식을 (진리의 문제임에도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지식을) 아무런 논의도 없이 대규모로 전승시키기 때문이다.

예식연설(epideixis)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것을 파이드로스가 낭독한 루시아스의 연설에서(『파이드로스』, 2303-234c), 그리고 『고르기아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장광설을 비난하고 간결한 답변을 요구하며 천명한 대화 규칙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간결한 답변을 요구함으로써, 소크라테스는 궁극적으로 설득의 기계, 즉 법정과 민회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영혼을 유혹하고 설득을 산출하는 기계를 파괴하고자 했다. 긴 논의의 전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쉽게 그것을 수사학과 동일시 할 수 있다. 더욱이 소크라테스는 대화 안에서 대화자들이 그저 승리 추구만을 집착해서는 안 되며, 답변자에게는 정직함이(『고르기아스』, 475d-e), 그리고 질문자에게는 신뢰가 요구된다(『에우튀데모스』, 295a-296c)고 주장하였다. 한 마디로 수사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려 하며, 법정과 민회에서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지식을 전달해주고자 한다. 어느 쪽이든 사람들은 지식의 전달을 원하는 셈이다.

소크라테스라는 인물과 연결되어, 또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의 교육 개념과 연결되어, 플라톤의 대화는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상대하는 대화자들과 관련하여 나타나기도 하며, 또 그들 안에 존재하거나 부재하는 지식의 기능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자처하는 무지야말로 플라톤이 대화라는 형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그는 자신의 스승을 교육자의 모델로 전화시키고자 원했던 셈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갖지 못한 지식을 전수할 수도, 그 자신이 지식을 산출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산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의 임무는 세 가지 행위를 함축하게 된다. (1) 대화자의 영혼이 비어있음을 파악하고 그 공허함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영혼이 지혜를 수태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2) 하지만 상대가 오류를 배태하고 있다면, 그는 그것의 출생을 막고 낙태시킨다. 그렇지 않고 대화자의 영혼이 진리를 배태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며, 그 진리라는 아이를 양육하라고 충고한다. 앞의 두 경우에서 대화는 생생하며 때때로 격렬하기까지 하다. 반면에 세 번째 경우 대화는 평화롭고, 그 극단에 가서는 예를 들어 『파르메니데스』의 후반부나 『법률』이 그렇듯이, 다소 관습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물론 평화로운 대화라고는 해도 한층 더 엄밀한 측면을 지니며 변증술적인 모습을 띠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것은 변증술이 우리를 좋음 자체로 인도하는 참된 실재의 지도를 확립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번역: 김유석(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전임연구원)

참고문헌

- Brisson, L.(1978), “La répartition des négations dans la seconde partie du Parménide de Platon. Le discours de Parménide. Informatique et statistique,” in *Revue de l'Organisation Internationale pour l'Etude des Langues anciennes par Ordinateur*, 1, 45-62.
- _____ (2007), “Une réfutation contagieuse: Banquet 199c-201c et 201e-203a,” in *Antiquorum philosophia* 1, 91-97.
- _____ (2010), “Quelques manuels de rhétorique antérieurs à Platon et à Aristote”, in Luc Brisson & Pierre Chiron (edd.), *Rhetorica philosophans, Mélanges offerts à Michel Patillon*, Vrin, 35-47.
- _____ (2010), “The relations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a dialogue and its formal structure: The example of the Theaetetus,” in A. Bosch-Veciana & J. Monserrat-Molas (eds.), *Philosophy and Dialogue. Studies on Plato's Dialogue*, vol. II, Barcelona (Barcelonesa d'Ediciones. Societat Catalana de Filosofia), 67-79 [Academia 6].
- _____ (근간), “Le dialogue comme forme littéraire chez Platon et Socrate,” in Ada Neschke-Hentscke (ed.), *Argumenta in Dialogis Platonis*, Schwabe.
- Cossutta, F. & Narcy, M.(edd.)(1991), *La forme dialogue chez Platon. Evolution et réception*, J. Millon.
- Dixsaut, M.(2001), *Métamorphoses de la dialectique dans les dialogues de Platon*, Vrin, 2001.
- Dorion, L.-A.(1990), “La subversion de l'elenchos juridique dans l'Apologie de Socrate,” in *Revue philosophique de Louvain*, vol. 88, 311-344.
- Gill, C. & McCabe, M. M.(eds.)(1996), *Form and Argument in Late Plato*, Clarendon.
- Gonzalez, F. (ed.)(1995), *The Third Way: New Direction in Platonic Scholarship*, Rowman and Littlefield.
- Griswold Jr., C.(ed.)(1988), *Platonic Writings, Platonic Readings*, Routledge.
- Hansen, M. H.(1987), *The Athenian Democracy in the Age of Demosthenes*, Blackwell.
- Kahn, C. H.(1996), *Plato and the Socratic Dialogue: The Philosophical Use of a Literary 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rferd, G. B.(1981), *The Sophistic Mov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lastos, G.(1983), “The Socratic elenchus,” in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27-58.

【Abstract】

Public discourse occupied a central place in classical Athens. Plato and Socrates attempted to oppose these two kinds of discourse through dialogue and dialectic. In the earlier dialogues, the dialectic is based on the series of questions and answers. By this cross-examination which is opposed to the sophistic long speech, Socrates could examine the ethical opinions of his interlocutors. Most of the questions concern the definition of a thing (what is X). For Plato, the definition of a thing is the same as finding the nature of that thing. In the Republic, the dialectic is required to a philosopher-king as a precondition to perceive the reality. And we can find, in the last dialogues, that the dialectic is transformed to a methodology, by which a philosopher, like a butcher, can divide a thing into its proper elements. In this text, I would like to oppose two argumentative instruments, on a historical and theoretical level : rhetoric as taught by the Sophists, and dialogue and dialectic as referred to the practice of philosophy, according to the description Plato gives of Socrates. By considering teaching not as the transmission, but as the discovery or knowledge or of the illusion of knowledge, Socrates opposes, on the one hand, the tradition represented by myth, and the sophistic claim that is manifested in display speeches or performance. It is in this context that Socrates and Plato propose the philosophical refutation and dialectic as an alternative of the myth and the rhetorical discourse.

【Keywords】 Socrates, Plato, Sophist, Rhetoric, Dialectic, Refutation

논문 투고일: 2011. 10. 01

심사 완료일: 2011. 10. 17

게재 확정일: 2011. 10. 21

